

푸드나무, 3분기 실적 매출 전년 대비 '37.4% 증가'

- ▶ 2018년 3분기 누적실적 매출액 405억 원·영업이익 53억 원·당기순이익 48억 원
- ▶ 4분기 신규 영업 확장 통한 매출 성장 기대

[2018-11-15] 푸드나무(대표 김영문)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다.

푸드나무가 15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적 공시에 따르면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405억 원, 영업이익은 53억 원, 당기순이익은 4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49.4%,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5.6%와 33.0%가 증가한 수치다.

동시에 전년도 연간 매출액 346억 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3분기만에 전년도 전체 매출액을 초과한 호실적을 달성했다.

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145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 당기순이익 17억 원이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3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6%, 당기순이익은 12.0%가 늘어났다.

푸드나무 관계자는 "추석 연휴 장기화에 따른 이커머스 업계의 전반적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만 37.4%의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며 "본격적인 해외 수출, TV홈쇼핑 진출, 신규 플랫폼 오픈,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성장 동력을 통해 4분기에도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